

尹, 숨가쁜 외교행보... 오늘부터 네덜란드·스페인 정상회담

김성한 실장 “6개 핵심성과 거둬 우리나라 외교 중요한 이정표 세워”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회담 조율중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부터는 국내에서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17일 한-네덜란드 정상 회담을,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 회담을 연이어 수행한다. 아울러 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를 놓고 경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부터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이 이어진다. 17일에는 네덜란드, 18일은 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

페인과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다”며 “무함마드 빈 살만 총리와의 회담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네덜란드는 반도체와 관련해 범세계적인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스페인 정상회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올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장국으로서 안보 협력 및 한-스페인 경제 협력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회담도 진행될 경우, 도시개발·인프라부터 시작해 원전과 방산 등에 대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5일, 4박 6일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6개 핵심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통해 ▲우리정부 최초로 독자적 인

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미동맹 강화 위한 구체적 논의 ▲한미일 3국 협력 확대 ▲한일 정상회담 개최 ▲2019년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윤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를 통해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우리의 생존과 안전,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 치열하게 협의했다”며 “이번 순방 성과를 잘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기재위 소위, 진통 끝 합의... 예산심사 본격화

與 ‘조세·청원’ 野 ‘재정·예결’ 법정처리시한 2주 남기고 타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안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16일 난항 끝에 타결됐다.

기재위에 따르면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민주당이,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이날 협상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기재위는 법안·예산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부수법률안 및 비쟁점법안 등을 상정 및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1일엔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을 들여다 본다.

기재위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약 2주 남기고 소위 구성을 마쳤다.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 이후 약 4개월만이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는 여당이,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예결소위는 여야가 1년씩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2년 동안 예결소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

에 신속한 법안 심의를 위한 ‘2+2 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 이후 류성걸 간사가 의원회관에 있는 신동근 간사를 찾아가 만나면서 긴급 회동이 이뤄졌다.

신동근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실무협의체와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원내 상의도 필요하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주식시장의 핫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중론에도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회 행안위 이채익(가운데)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이만희(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산안 상정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시

행안위 예산안 與野 거친 설전에 ‘과행’

이임재·류미진 증인 참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16일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로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인 후 과행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증인에 대한 여야 질의 전에 상임위는 과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과 지역사회상품권 예산 전액 원상복구 등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자고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겐 따졌고, 이채익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정에 반대했다.

/박태홍 기자

與 조직정비 시작... 친윤계 중심 재편 우려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 비상대책위 정기 당무감사 예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조직 정비를 시작한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 접수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기 당무감사도 예고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친윤계(親윤석열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 조강특위는 17~18일 공석인 66개 당원협의회 위원장 추가 공모 접수를 한다. 정진석 비대위는 정기 당무감사를 위한 당무감사위원회도 꾸렸다. 당 차원에서 위원장이 공석인 당원협의회 정비와 함께, 조직 운영 및 당원 관리 실태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김석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강특위는 이준석 전 대표 당시 진행한 당협위원장 공모와 별개로 추가 접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파 줄 세우기’라

는 우려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조강특위를 꾸려 전국 28개 위원장 공모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모에서 14명이 내정됐으나, 이 전 대표 징계로 최고위 의결은 거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허은아(서울 동대문) 의원, 정미경(경기 성남 분당) 전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 사무총장은 친윤계 중심으로 조직 재편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지만, 내부 불만은 여전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친윤계 인사들이 추가 공모에 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올해 대통령선거 당시 상임공보특보 단장을 지낸 김경진 전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 추가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허은아 의원은 지난 1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순간이

었는데, 대표가 바뀌면서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며 “당이 합리적으로 또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이 전 대표 체제에서 위원장으로 내정된 지역이 추가 공모 접수 대상에 포함된 기사를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뒤 “웃기고 있네”라고 했다.

그러자 김해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유승민 전 의원, 김웅 의원은 ‘조강특위가 사고 당협위원장을 모집하는 건 친이준석계 속아내기다’라며 당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강특위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맞섰다.

정진석비대위원장이 정기당무감사를 예고한 데 대한 불만도 있다. 통상 당무감사를 거쳐 각종 비위 연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조직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 인사 등이 위원장직에서 박탈되거나 당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오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안철수 “융합연구 선도적 규제완화 필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책포럼 강연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사진)이 16일 융합연구 결정체이자 미래를 예측한 규제 완화, 실패 여부와 관계없는 지원 등으로 미국이 mRNA 기반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언급한 뒤 “(mRNA 백신 개발 과정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도) 바뀌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해보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책포럼을 통해 “미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mRNA 기반 백신 개발 과정을 꼽을 수 있



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는 주제로 포럼에서 안 의원은 미국의 mRNA 기반 백신 개발 과정을 ▲융합연구 성과 ▲정부 차원의 선도적 규제 완화 ▲실패 여부와 상관없는 연구 지원 등으로 요약해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 완화를 두고 안 의원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융합연구) 아이디어를 갖고 백신을 개발할 때, 미국 정부가 먼저 알았다. 정부는 백신 개발 과정이 알려져 있으니, 그 앞에 놓인 법률적 여러 가지 제약이나 규제를 미리 없앴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